

중증환자 중심 지역의료 통합돌봄: 현황과 과제

Integrated Community Healthcare for Severe Patients: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이진용 Lee, Jin Yong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1. 서론

현대 의료 환경은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병원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병원 중심 의료체계에서는 연속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상급종합병원 퇴원환자 수는 약 194만 명에 이른다(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 하지만 이들 환자 중 전환기 의료(Transitional Care)가 필요한 환자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전환기 의료는 급성기 치료 종료 후 퇴원한 중증질환자가 가정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으며 지역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WHO, 2016). 중증환자가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재택의료와 복지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의료 통합돌봄 모델이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지역의료 통합돌봄 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중증환자 재택의료의 필요성과 현행 제도 분석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중증 급성기 질환 환자들은 병원 치료 이후에도 장기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병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환자들이 퇴원 후에도 병원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간다. 중증질환 퇴원환자들이 지역사회로 돌아가 생활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이용하던 상급종합병원과 지역사회 간의 원활한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중증 급성기 환자가 퇴원 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퇴원 관리와 지역사회 연계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표 1] 중증환자 퇴원 관리 국외 사례

구분		대상자	제공서비스	
			퇴원후 관리	지역사회 관리
미국	Transitional Care Management	급성기 병원, 정신과 병원, LTCH, SNF, IRF 등에서 퇴원한 후 집이나 요양원 등으로 가는 환자	○ (비대면)	
영국	Intermediate Care	기능이 저하된 노인 환자, 병원에서 퇴원 후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환자, 단기간의 개입으로 기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	○	
호주	Transition care programme	병원에 입원하여 급성기 치료를 받은 노인 중, Aged Care Assessment Team(ACAT)의 평가 결과 서비스 대상 기준에 합당한 노인	○	
싱가폴	Hospital-to-Home (H2H)	퇴원전담팀이 급성기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들의 중증도와 케어 요구도를 사정하여 대상자를 선정	○	○ (연계)
일본	퇴원지원실	“퇴원 곤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입원 환자	○	○ (연계)

자료: 이선영, 2024, 2024년 서울대학교병원-PACEN Joint Symposium 고령화시대의 필수의료, 중증질환자 전환기 치료의 발전방향. 재구성

한편, 한국에서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다양한 재택의료, 돌봄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한다. 현행 제도는 환자의 복합적인 의료 및 복지 요구를 통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과 복지 서비스 간의 연계가 미흡하다. 이는 의료, 돌봄, 요양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이건세 등, 2024). 또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강보험에서 재택의료에 대한 시범사업, 수가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중증소아,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과 같이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거나,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퇴원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적 재택의료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를 제공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이는 건강보험 및 재가요양에서 운영하는 관련 사업과 연계될 수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재택의료 시범사업에서는 적절한 인력 구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재택의료 사업의 부재는 고난이도 재택의료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와 배치가 제한된다.

[표 2]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재가 등 재택의료 요양급여비용 구성

구분	관리 계획 수립료	교육·상담료	방문료			환자 관리료	재택 의료 기본료	지속 관리료	추가 관리료
			의사	간호사	물리·작업 치료사				
시범사업	중증소아 재택의료	○	○	○	○	○			
	환자 재택의료		○			○			
	일차의료 방문진료 (의과/한의)			○					
	장애인 건강주치의	○	○	○	○	○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	○	○		○			
	재활의료기관 수가	○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			○	○	○
수가	가정형 호스피스			○	○				
	통합환자 관리료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				
기타	재가 의료급여 사업	○	○	○	○				

3. 중증환자 중심 지역의료 통합돌봄 모델

중증환자 중심 지역의료 통합돌봄은 새로운 주거형태가 아닌, 환자가 살고 있는 집에서 지속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과 함께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의료이용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의료 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과 협업하여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증환자의 원활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재택의료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모델은 중증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병원과 지역사회 의료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환자 개별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째, 재택의료지원센터는 상급종합병원과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 방문진료팀과의 연계를 통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퇴원 후 재입원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재택의료지원센터는 법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함으로써 재택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전담 재택의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위한 전용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지속 가능하고 양질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의료진의 방문료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지역사회 의료기관 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회송료 및 연계료 신설이 필요하다.

4. 기대 효과 및 결론

이 연구에서 제안한 중증환자 중심 지역의료 통합돌봄 모델이 정착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중증환자 재택의료 전달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상급종합병원과 지역사회 의료기관 간 협력이 강화되고,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다. 이를 통해 병원의 환자 과밀화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지속적인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다. 셋째,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비 절감과 병원의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증질환 환자의 지역사회 기반 의료 지원은 필수적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재택의료 전달체계 구축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정책적 논의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의료 통합돌봄 모델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 2022년 의료서비스이용현황
- WHO, 2016, Transitions of Care: Technical Series on Safer Primary Care
- 이선영, 2024, 2024년 서울대학교병원-PACEN Joint Symposium 고령화시대의 필수의료, 중증질환자 전환기 치료의 발전방향
- 이건세 등, 돌봄의료원스톱센터 및 혁신형 공공병원 모델개발 정책연구, 2024.